

KIA 日 마무리 캠프서 ML 진출 담금질...볼티모어 윤석민

‘나’ 던져 ‘나’를 찾겠습니다



오늘 출국...미야자키 캠프 합류 투구 훈련 집중
“실패 원인은 내 탓...예전의 좋은 모습 찾겠다”

바리그를 향한 윤석민(볼티모어)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바리그 입성 플레이 준비했다. 친정팀 KIA의 마무리 캠프가 윤석민의 베이스 캠프다.

윤석민은 12일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한다. 윤석민은 휴가시에 꾸러진 KIA 캠프를 찾아 친정팀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석민은 “요즘 특별한 일정 없이 운동을 하면서 지냈다. 일주일에 6일 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준비를 했다. 체력 위주로 해서 하체운동을 많이 했다. 미야자키에서는 공을 던지면서 피칭 훈련을 할 계획이다. 공을 안 던진 지 오래됐다. 차분하게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고하지 못한 볼티모어에서의 입지와 한국 복귀에 관한 얘기 등으로 KIA와의 관계가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마음 편하게 찾게 된 곳은 역시 ‘친정’이었다. 피칭훈련이 내년 시즌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윤석민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훈련을 하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겠다는 각

오다.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개인 통역도 동하고 일본을 찾는다.

KIA도 선전 야구를 경험한 베테랑 윤석민이 선수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두 팔 벌려 윤석민의 합류를 반겼다.

윤석민이 일본에서 찾고 싶은 것은 ‘힘’이다. 올 시즌을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바리그를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 윤석민의 얘기다. ‘힘’이 관건이다.

윤석민은 “냉정하게 말하면 올 시즌은 실패다. 이런 저런 상황과 사정으로서 시즌 전에 운동을 못한 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핑계인 것 같다. 내가 웨이트도 많이 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힘으로 붙어서 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실력이 느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전의 좋은 모습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도 찾아야 한다. 워낙에 좋지 않아서 많이 맞기도 했는데 좋은 때 모습으로 공을 던지면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실패 원인은 나에게 있다. 처음 마이너에서 생활해보면서 경

기 긴장감도 떨어지고 준비도 부족했다. 내가 문제였다. 바닥에서부터 다른 마음 가짐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최다패의 주인공이자 투수 4관왕이기도 한,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보낸 9년의 시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윤석민에게도 올 한 해는 배움과 새로움의 시간이었다.

윤석민은 “미국 동료들을 보면서 야구하는 마인드나 힘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야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느낀 것이 많다. 영어도 잘 못하고 이동거리도 길고, 한국음식도 못 먹고 하면서 항수병에 걸리기도 했다. 여전히 말은 잘 못하지만 잘 어울리고 적응했다. 견딜 말 한 정도다”고 언급했다.

1년의 쓴 경험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진 윤석민은 후회 없는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말 많고 탈도 많은 바리그 도전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가슴 떨리는 도전이다.

“인터넷으로 내 이름을 검색해 사람들 반응을 보기도 하는데 욕밖에 없더라”며 웃은 윤석민은 “내가 잘하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보고 싶다”고 새로운 도전을 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최동원상’

제1회 수상...“선배 투지 본 받겠다”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잘해 최동원상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이 ‘불멸의 투수’ 최동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최동원상을 받았다.

양현종은 11일 부산시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 내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동원 기념사업회로부터 최동원의 생전 역투 모습을 담은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앞서 사직구장을 찾아 경기장 앞에 세워진 최동원 동상에 헌화한 뒤 팬 사인회도 가졌다.

영광의 수상자가 된 양현종은 한국 야구계의 전설인 최동원 선수의 이름을 딴 상에 걸맞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현종은 11일 “부산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원로 야구인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시상식 내내 경건함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동원에 대해서는 함께 해보지 못한 대선배이지만 중요한 계임에서 위촉되지 않고 성적을 내는 모습과 투지는 반드시 본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내년 시즌 해외진출을 위해 포스팅을 앞두고 있는 양현종은 “포스팅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지만 미국이든 일본이든 여건이 허락되는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인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포스팅 전망에 대해서는 “포스팅 결과는 하늘의 운이 상당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액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이 중요한 만큼 결정은 구단에 맡기고 야구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진출에 대해 “박찬호 선배가 바리그의 문을 열었고,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 문을 더욱 활짝 열어 더 이상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후배가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인비 vs 루이스

LPGA 올해의 선수상 예측불허

2014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가 남은 2개 대회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11일 현재 LPGA 투어 볼렉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Player of the Year) 부문에서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229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217점으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어 아직 누가 올해의 선수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시즌은 13일부터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과 20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등 2개 대회가 남았다.

박인비와 루이스는 남은 2개 대회에 모두 출전할 예정이다. 13일 개막하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면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 준우승하면 12점을 받기 때문에 박인비로서는 얼마든지 루이스를 추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시즌에는 박인비, 2012년에는 루이스가 이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박인비의 수상’과 ‘루이스의 탈환’ 의미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상금왕 부문도 아직 루이스의 1위 확정을 눈치채는 이른다. 루이스는 현재 249만2483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박인비가 213만4415 달러로 2위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은 우승 상금 20만 달러,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는 우승 상금 50만 달러가 걸려 있어 둘의 남은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 1위가 정해진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는 박인비와 루이스, 리디아 고(뉴질랜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평산산(중국) 등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올해 메이저 대회 우승자 5명 가운데 김효주(19·롯데)를 제외한 박인비, 렉시 톰프슨(미국), 미셸 위(25·나이키골프), 모 마틴(미국) 등 4명이 출전한다. 9일 일본에서 끝난 미즈노 클래식 우승자 이미향(21·볼빅)도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김광현 포스팅 금액 얼마나 낮길래...SK 깊은 고민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노리는 김광현(26)과 원소속팀 SK 와이번스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광현의 유일한 미국 프로야구 진출 조건이었던 “자존심을 지키기만함의 포스팅 금액”의 적정선을 고민 중이다. 11일 오전 김광현(26) 영입 의사를 가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이 쉐넬 최고 총괄책임자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소속 구단인 SK 와이번스에 전담됐다.

SK는 포스팅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임원진과 실무자가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포스팅 금액이 김광현과 SK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SK는 김광현에게 포스팅 금액을 알렸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열망하는 김광현도 “무조건 수용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김광현은 9년을 채워야 획득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 구단의 동기가 있어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SK 관계자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KBO가 SK에 제시한 ‘수용 여부 결정 기한’은 14일 오후 6시다. /연합뉴스